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0년 2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청소년의 장애인식과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의 관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회 숙

청소년의 장애인식과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의 관계

Relationships with Disability Recognition, Self-concept
and Sociability Development of Adolescents

2020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회 숙

청소년의 장애인식과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의 관계

지도교수 김 정 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0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회 숙

김희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 은 희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 유 성 인

2020년 0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목차	iii
그림목차	iii
ABSTRACT	i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장애인식	7
2. 자아개념	10
3. 사회성	16
4. 선행연구 고찰	19
III. 연구 방법	24
1. 연구 대상	24
2. 연구 도구	25
3. 자료 분석	27
IV. 연구결과	29

1. 청소년의 성별, 연령에 따른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 차이 검증	29
2.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의 상관분석	32
3.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의 관계분석	35
V. 논의 및 결론	39
1. 논의	39
2. 결론 및 제언	40
참 고 문 헌	43
부 록	51

표목차

[표 II-1] 장애인식과 자아개념 관련 선행연구	19
[표 II-2] 장애인식과 사회성 발달 관련 선행연구	21
[표 II-3] 자아개념과 사회성발달 관련 선행연구	22
[표 III-1] 자아개념의 위계적 구조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24
[표 III-2] 장애인식 척도 및 신뢰도	25
[표 III-3] 자아개념 척도 및 신뢰도	26
[표 III-4] 사회성 척도 및 신뢰도	27
[표 IV-1] 성별에 따른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 차이 검증	30
[표 IV-2] 연령에 따른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 차이 검증	31
[표 IV-3]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의 상관관계	33
[표 IV-4] 장애인식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35
[표 IV-5] 장애인식 하위요인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36
[표 IV-6] 장애인식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37
[표 IV-7] 장애인식 하위요인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38

그림목차

[그림 II-1] 자아개념의 위계적 구조	13
------------------------------	----

ABSTRACT

Relationships with Disability Recognition, Self-concept and Sociability Development of Adolescents

Kim hoe-sook

Advisor : Prof. Jeongyoun Kim Ph. D.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adolescent's disability, self-concept and social develop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e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sability, self-concept, and social development according to gender. Ag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ly in social development. As a result of the post-test, the 17-year-old group revealed significantly social development than the 15- and 16-year-old groups.

Second,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disability and self-concept and social development, the disability and self-concept, disability and sociality, self-concept and sociality showed positive correlation. Disabled people have a positive effect on self-concept and sociality.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disability on self-concept self-concept, the effect of disability on self-concept self-concep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ffect of the sub-factors with disabilities on self-concept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elf-concepts.

However, the effects of ability factor and activity factor on self-concep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th, as a result of analysis on the impact of disability on social development, the effect of disability on social develop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 influences of the handicapped sub-factors on social development, the evaluation factor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development. However, the effects of ability and activity factors on social developmen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도시화의 진전과 산업발달로 선천적, 후천적 요인의 장애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해 졌고 장애인의 숫자는 점점 증가 되고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통계에 의하면 전체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은 약 5.0%에 해당되며 이 중 지체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47.9%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정도별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경중의 장애인은 67.7%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과거에 나와 다른 것에 대하여 무조건 부정하는 획일화된 사회가 아니라, 현대사회는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나와 다른 것도 수용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상생의 세상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장애를 정상과 이상의 개념에서 벗어나 장애에 대한 부정적 느낌이나 편견, 고정관념에 고착되지 않고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결함이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여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특수성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김삼섭, 1999). 이러한 장애 또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안목을 장애인 관(關)이라고 하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장애인 관과 편견의 근원은 우리나라의 의식 구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김삼섭, 1999).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 혹은 편견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일반사회의 장애인관 또는 장애인식이 긍정적일 경우, 장애학생의 학교통합은 물론 사회통합이 성공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통합교육에 관심이 있는 특수교육자들은 일반사회의 긍정적 장애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송경숙, 2004).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차별받거나 분리되서는 안되고,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장애 인식과 태도의 전환을 통하여 행복하고 더불어 할 수 있는 완전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모든 청소년들의

장애인식의 이해 정도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통합교육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장애이해프로그램, 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교육부, 2015).

위와 같은 변화와 더불어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3년부터 전국의 유, 초, 중등학교에서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가 권장되어 왔고, 2008년부터는 연 2회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되도록 추진되었으며,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19)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부, 2019).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연 2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비율은 90%이상에 달하고, 점차 학교 현장에서의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가 권장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변화하고 있다(교육부, 2018). 교사와 학부모 연수 등과 같이 대상을 달리하여 개선 교육 연수를 늘려가고 있지만 연 2회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식을 개선하기에 실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횟수이다. 이에 교육부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특수교육 발전 계획을 발표했지만, 진정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나 오늘날의 학교는 정규교육 외에도 교육과 복지적 성격을 겸한 역할이 점차 많아지고 학사일정 안에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나 연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조소이, 2014). 특히 진학을 위한 성적이 중시되는 중, 고등교육 현장에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수용태도 개선을 위해서 이제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실시보다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교육을 이루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이대식 외, 2011). 단순히 장애를 가진 학생이 일반학급의 일과를 함께 하도록 배치를 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적인 통합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며, 통합학급의 담임교사를 비롯한 기타 교과교사들의 참여와 적절한 수준의 배려, 교육적 수정 뿐 아니라 장애학생들이 학교 일과를 함께 하는 동료 비장애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상태의 통합에 그치며 장애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여전히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

다(조소이, 2014).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장애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학생들은 장애학생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관심하거나 장애인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에 대해 비장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용적인 태도가 장애인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긍정, 중립,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강정희, 2008). 일반 고등학생이 장애학생과 관계를 형성하여 생활하는 것은 자아개념의 향상, 사회적 인식의 진전, 타인에 대한 인내력의 향상,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두려움 감소, 개인적 가치관 발달, 상호간의 수용 관계 등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eck, Donaldson & Pezzoli, 1990).

청소년기에 있어 자아개념은 중요한 과제이며 인간행동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 형성과 동기 유발은 개인적 발달과 인성교육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건강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며, 학교의 교육적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있다(송경숙, 2004).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장애 이해 프로그램이 아동들의 장애인식에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들보다 장애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식이 긍정적인 아동들은 자아개념 향상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현희, 2005). 중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일반학생들의 장애인식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학교생활적응과 교우관계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정, 2006).

일반 학급의 비장애 학생이 장애인식의 효과로 공감능력을 가짐으로써 사회성이 향상되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격적인 행동이 줄어들게 되어 또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강경아, 2004). 또한 이러한 사회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최하영, 2015).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결과에서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신체적 사회적 접촉이 잦고 소통하게 되면 비장애 아동들의 장애인식이 긍정적으로 변

하고 바람직한 태도와 인격이 성장을 경험하여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범 외, 2012).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다(김홍주, 2004; 이현희, 2005, 장세호, 2018). 이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미 성숙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일반학생들은 장애학생을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윤길옥, 2014).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서로간의 직접적인 경험은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고 이는 일반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표출, 대화나 토론의 진행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통해서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김현숙, 2011). 학교 현장에서 생활하는 공간이니 만큼 자신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 알고 상대방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학교 구성원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일반 고등학생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별, 연령을 연구하고, 청소년기에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이들의 관계를 연구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연구된 논문이 적고, 청소년이 지각하는 장애인식과 자아개념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탐색하여 이를 통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켜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실천하는데 기초 자료 제공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장애인식과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세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 목적을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에 따라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에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장애인식과 자아개념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의 장애인식과 사회성 발달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장애인식

장애인식은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지식이나 접촉한 경험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의 상태로써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기초 요소가 된다(정다연, 2019). 일반학생의 장애인식은 일반학생이 장애인을 보는 관점과 일반학생이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로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국립특수교육원 2002). 본 연구에서의 장애인식은 Osgood(1957)의 장애인에 관한 설문지를 통해 측정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서로에 대한 보상적이고 협동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 장애학생의 능력에 대한 인식, 장애학생의 활동 능력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김공실, 2010).

2) 자아개념

자아개념(self-concept)은 자아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견해를 말하며 크게 긍정적인 개념과 부정적인 개념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자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지적인 신념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이다(위영미, 2003). 이러한 자아 개념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견해를 비롯하여 성격과 태도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자기수용, 성취감, 자신감과 연결되어 행동을 결정하고 표출하며 변화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Purkey, 1970). 본 연구에서 자아개념은 송인순(2009)과 신철희(2019)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일반적 자아, 중요타인 자아, 정의적 자아를 의미한다.

3) 사회성

사회성(sociability)은 인성의 한 가지 특성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사회생활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 심적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성질”, “사회를 형성하려는 인간의 특성, 남과 잘 사귀는 성질”로 정의할 수 있다(신재웅, 2019). 또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 성질, 인격, 혹은 성격 분류에 나타나는 특성의 하나로 사회에 적응하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 대인관계의 원만성을 말한다(계수정, 1993).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 발달에 관한 설문지로 활동성, 성취성, 지배성, 사교성, 자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식

1) 장애인식의 정의

장애인이란 함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정의은 단순하지 않으며, 복잡한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변화하여 왔다(차률, 2013).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그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제도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변화하며 장애인 조사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인구와 장애 출현률은 이러한 정의에 따라 변화한다(정만복, 2010).

인식이란 사물의 의의를 바로 이해하고 판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하고,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이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인식은 개인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김희정, 2006). 이러한 내용은 인간은 자기화 접촉된 환경에 대하여 모든 사람과 사물,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통해 태도가 결정되거나,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고 기존의 태도를 강화시키는 과정을 갖는다. 또, 인식은 좁은 의미로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로 정의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 태도 그 자체를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인식과 인지를 함께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인식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아는 작용 즉 외적 내적 경험을 반성하며 이를 자기의 지식 체계로 발전시키는 계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정확한 정보나 지식에 따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으며 새로운 동기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김상현, 2007).

태도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되어지는 것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달되어 가는 변화 가능한 복합적인 과정이다.

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습되어 지고, 발달되는 변화가 가능한 복합적인 과정으로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자아는 태도의 개념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태도에 대한 개념 정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근본적으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김홍주, 2004). Rosenberg(1978)는 태도를 어떤 대상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정서적 반응이라 하였고 그 구성요소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로 나누었고 이 세 요소가 일관성 있게 조직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때 태도는 균형을 이루고 개인은 더욱 만족을 느끼게 되지만 일관성이 없을 때는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이연경, 2002).

이와 같이 우리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좁은 의미로는 태도의 구성요소로 정의할 수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인식을 태도 그 자체로 보는 견해도 있다(곽재복, 1992).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다(오광진, 2010).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장애인 자신을 포함하여 그 사회의 장애에 대한 관심의 정도라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고 있다면 이는 장애인들의 모습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국민들이 왜곡된 반응을 보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다(권선진, 2004). 자아정체성이 형성되고 사회성이 발달해 가는 청소년기인 고등학생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각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여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정영숙, 2005; Esposito & Peach, 1983).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장애에 대한 제한된 정보로 인한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다(나선희, 2004).

2) 장애인식의 형성 요인

장애인식의 형성요인은 하나의 사고 방식을 단일 이유로 보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고, 시대적 사상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형성 요인으로 보편인간의 지향, 완전 인간의 지향, 욕구불만의 전위, 초자아의 결여, 전통복지법의 행이 등을 들고 있다(이규태, 1981).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문제를 설명할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 온 것은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한 비과학적 미신적 선입견 때문이라고 보는 편견이론으로 사회적 노출이나 접촉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반 대중이 장애인에 대해 갖게 되는 이해는 결국 이야기나 설화들을 통한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인식 형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김용득, 유동철, 2001). 그리고 인간본질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식의 형성요인으로는 완전인간의 지향, 보편인간이 지향, 인간소외의 가치기준, 건강개념의 왜곡 등을 들 수 있다(김영환, 김삼섭, 1988).

첫째, 장애인을 접촉할 때 일반인들이 긴장을 느껴 장애자니 농아니 하는 말조차 쓰기를 꺼리는 태도, 즉 접촉 시 긴장감, 장애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의 거부, 장애학생의 능력이나 특수교육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학과 취업을 거부하는 태도인 일반적인 거부, 장애인을 인간 평등과 존엄성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돕고 교육하는 것을 미덕으로 믿는 태도인 권위적 미덕, 장애인은 누구나 이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타인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느끼는 반응, 즉 추론된 정서장애, 죄와 장애를 동일시하여 장애자를 보면 약점이나 죄를 생각하게 되어 자신도 저렇게 장애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태도인 왜곡된 동일시, 장애자는 무능력하여 부모나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태도인 무능 등이다(Siller, 1967).

둘째, 장애인과의 접촉과 교류에 따라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 혹은 호의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가지만, 아무런 교육적 조치 없이 단순한 통합은 본래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보다 장애아동에게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장애아동에 대한 물리적인 접촉경험은 부적절한 행동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아동과 장애아동과의 물리적인

근접성은 이들의 사회적 거리를 더 멀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오유석, 2001). 셋째, 인간소외의 가치 기준도 부정적 장애인식 형성 요인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대비교는 인류가 타인을 의식하기 시작한 때부터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상대비교는 자신이 정상이라고 믿는 것에서 일탈되었을 경우에는 평균절하 하는 것이 보통이다(이규태, 1981). 마지막으로 건강이 의미에 대한 왜곡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사람들은 막연히 병이란 두려움과 피해야 할 나쁜 것이고, 건강이란 무조건 추구해야 할 좋은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본질적인 자기를 상실하고 처절한 자기 소외감 속에서 자기반성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욱 건강이라는 빈말에 분별을 잃고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송경숙, 2004). 청소년기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형성은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숙경, 2007).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지식이나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역할 기대가 크고, 그들에 대한 태도도 호의적이다(강수균·조홍중, 2003).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아동기나 중·고등학교의 학습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볼 때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도덕성, 사회적 이해력, 이타성 등에 절대적 영향을 갖는다.

2. 자아개념

1) 자아개념의 정의

자아개념(self-concept)은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자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지적인 신념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람 속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김희정, 2006).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신체적 특징, 개인적 능력, 특성, 가치관, 역할, 흥미, 사회적 지위 등을 포함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지각과 판단을 의미한다(위영미, 2003).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며, 환경적

으로는 자신의 사회·문화적 경험을 통해 자신을 그 사회의 준거에 비추어 형성되고, 이러한 자아개념은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해 평가되어지는 자신에 대한 지각을 말하는 것이다(김유진, 2014). 자아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William James(1890)로서 「심리학의 원리」에서 최초로 자아라는 개념을 규정하면서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아를 분석하여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즉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위해서 물질적 소유물, 가족, 조상, 일, 명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각대상을 자아개념에 포함시켰다(최강준, 2003). 정의적 행동 특성의 중심 개념이자 정신적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자아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달라 매우 다양하게 기술되고 있다(송경숙, 2004). 관심에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자아개념을 보는 시각도 다양하여, 자아(self)·자신(ego)·자아의식(self-knowledge)·자아정체(self-identity)·자기이해(self-understanding)·자아상(self-image)·자아존중감(self-esteem)·현사적 자아(self-phenomenal) 등이 때로는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송원섭, 1989). 자아개념은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전제로 하는 총체적 자아지각으로써 자신의 능력, 태도, 신체 등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지각, 개념, 태도이며 독특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Goodwin and Driscoll, 1982; Purkey, 1970; 임효선, 2003). 이러한 체계는 개인의 행동에 대해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의 역할을 하며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자아개념에 합치되도록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되며, 반대로 자기 자신은 쓸모없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그에 따라 행동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부정적으로 하게 된다(남민정, 2010). 실제로 자아개념에 대한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정원식(1968)은 자아개념을 “한 개인이 그가 처해있는 생활의 장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느낌”으로, 전병재(1973)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로, 강문희(2000)는 “자기와 타인을 구분하여 자신을 지각하는 것으로서 자기 존재의 한 부분이며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지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형성과 교류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시에 자기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판단을 통해 형

성되어 간다(김애경, 2003)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의 의미를 내포 한다는 의미가 있다(김경보, 2009)고 주장하였다.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Freud는 자아란 현실원리(reality principle)에 지배를 받는 주체의 기능이며, 자아는 보다 고차적이거나 인지적인 정신과정으로 현실적, 논리적 사고와 계획을 수반한다고 하였다(이혜은, 2012).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 Meed는 사회와 개인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이끌어냈고, 개인과 관련된 사회조건 내에서 자아를 찾았다. Meed의 자아는 인식의 객체(an object of awareness)로써, ‘사회적으로 형성된 자아’를 말하는 것이다(이부영, 2002). 현상학적 입장에서, Rogers는 개인의 자신에 대한 지각을 자아개념이라고 하였고, Rogers는 ‘자아’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형성되며, 지각적인 장의 부분이 점차적으로 자기로 분화된다고 보았다(위영미, 2003). Rogers는 자아개념과 유기체, 자아개념의 조화와 부조화가 개인이 적응하는데 있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자아개념과 유기체 사이에서 부조화가 나타나면 개인을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자기 방어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위축되 타인을 수용하지 못하고 완고해 진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에게 있는 그대로의 실제적 자기(real self)와 이상으로 삼고자 이상적 자기(ideal self)간에 부조화가 오면 개인은 역시 위협과 불안을 느껴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자기 방어적이 된다고 강조하였다(위영미, 2003).

이와 같이 자아개념이란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를 인지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고 중요성에 대해 판단하는 인간의 정의적 특성 중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특성

사람은 자신에 대한 관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자신에 대한 관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경험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Purkey는 자아개념은 그 자체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

서 자아관이 부정적이면 모든 경험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자아관이 긍정적이면 새로운 경험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자아개념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한 개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자기 평가와 관련된 모든 특성들의 구조물로 자기를 기술하는 행동특성을 의미한다(이순재, 1994).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아개념이 가지는 다차원적 측면을 구분하여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자아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그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장경수,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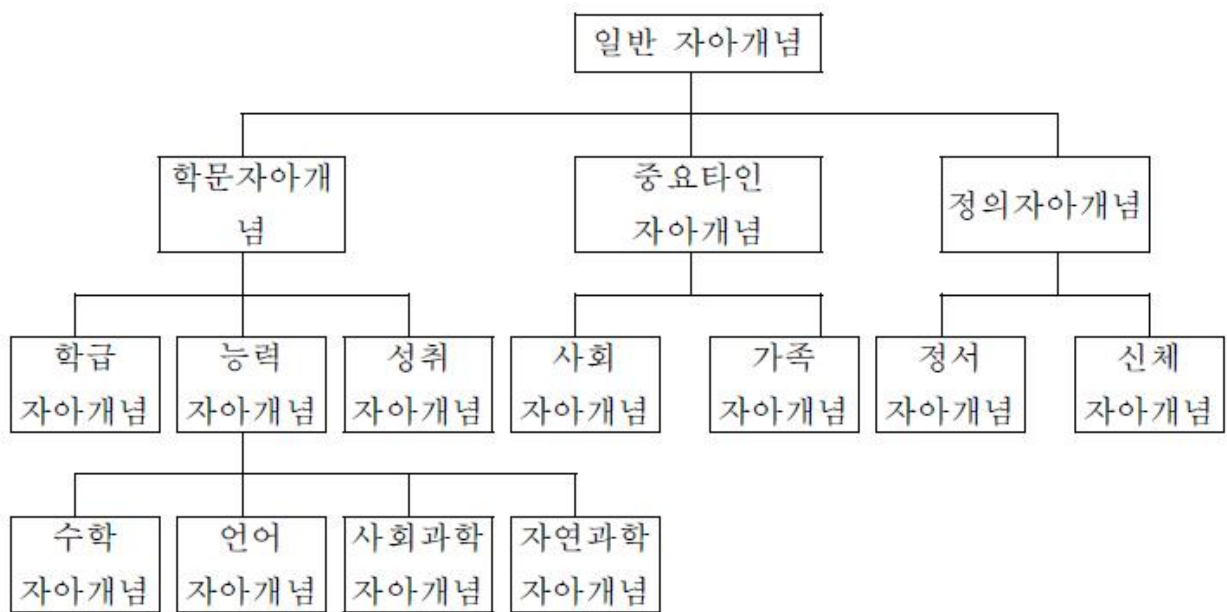
Sarbim(1952)은 행동은 인지적 구조로 조직되었으며, 인지적 구조의 주요 요인이 자아라고 하였다. 자아개념의 본질은 위계적, 일관성,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자아와 같은 상이한 경험적 자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역동적 조직으로 경험과 함께 나타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하여 중요한 타인과 함께 나타나며, 최소한 두 가지의 기본 기능과 유지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아 개념조직이 외부에서 위협을 받을 때, 개인은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위협에 대한 방어를 실시한다(Sarbim, 1952). 그리고 구조화, 다면적, 위계적, 서술적인 측면과 평가적인 측면, 다른 구인들로부터 분화될 수 있다(Marsh, 1990).

자아개념이 다면적(multi-faceted), 위계적(hierarchical)구조를 지니며, 여러 가지 중요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송인섭, 1998). 자아개념의 내적 구조를 3차원적 위계적 구조모형의 관점에 의거 학급 자아개념, 능력 자아개념, 성취 자아개념, 사회 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정서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으로 정의하였다(송인섭, 2011).

개인의 일반적 자아개념은 하위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총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지각하는 특성이다(이진영, 위은하, 2013). 높은 일반 자아개념은 전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으며, 현재 모습과 행동에 만족하는 것을 나타낸다(신희철, 2019). 중요타인 자아개념은 사회적 인간관계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 사회 자아개념, 가정에서의 적응에 대한 지각인 가족 자아개념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대인관계 및 중요 타인에 대한 평가 지각 수준을 나타낸다(문지영, 2018). 중요타인 자아개념에서의 사회 자아개념은 중요

타인에 의한 평가에서 형성되는 지각으로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정도를 평가한 지각이며, 가족 자아개념은 가족의 평가를 통해 형성되는 가정에서의 적응에 대한 자아 지각의 정도이다(이진영, 위은하, 2013). 정의 자아개념은 정서 자아개념과 신체 자아개념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정서 자아개념은 개인의 정서적 반응 정도와 도덕성에 관한 지각을, 신체 자아개념은 신체 및 외모에 대한 지각 정도를 나타낸다(문지영, 2018).

자아개념의 내적 구조를 3차원적 위계 요인 모형은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자아개념의 위계적 구조

출처 : 송인섭(2011). Q-기법을 적용한 자아개념 구인 타당도 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10(1), p. 32.

3)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아개념은 유아기부터 지속적으로 발달하며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세분화되는 동시에 보다 전체적으로 통합되어간다(김정화, 2016). 개개인의 사람들은 다양한 자아개념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아개념 발전의 과정은 결코 끝날 수가 없으며,

자아개념은 개인이 “되어지는”과정에서 새로운 잠재력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처럼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것이다(송경숙, 2004).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아개념의 형성은 점차로 발달되는데 부모나 동료들의 평가로부터 변화되기도 하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아의 일부로 삼기도 한다. 이는 혼자만이 경험하는 개인의식으로 나타나며 고정된 실체는 아니고, 기본적인 성장특성으로 이전된다. 청소년기가 되면 자아의식은 급격히 발달하여 권위에 저항하며 기성세대의 행동과 현실사회 질서를 비판할 수 있는 반성적 의식이 발달한다. 따라서 기존에 형성된 자아개념을 수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은 타인과의 관계, 자기에 대한 타인지각, 부모나 동료들의 평가, 중요한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받으며 분화와 종합과정을 거쳐, 수정 발전 및 재조직되어 간다(주연수, 1999).

자아개념의 다양한 자원 중에서 인생의 각기 다른 시각에 따른 다섯 가지 중요한 점들은 신체영상, 언어, 송환 작용, 성 역할 모형, 그리고 어린이 양육방법 등이다(송인섭, 1998). 신체영상은 구별되는 대상으로서 자아의 형가이고, 언어는 자아와 다른 것들에 대한 개념화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견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다양한 사회적 규준과 가치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느냐가 환경으로부터 송환 작용이다(송인섭, 1998).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해 자신의 경험과 환경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계획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면서 자신을 둘러싼 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개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장경수, 2014).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 성적, 가정적, 직업적, 사회적 여건에 따른 자기존재의 본질이나 위치와 역할 등을 파악하여 적응하게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는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에 대한 평가로 정의되는 자아개념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진선, 2015). 또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속에 표현되는 개인적인 가치 판단으로 초기에는 부모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성장해감에 따라 친구나 학교, 교사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장영애, 손영미, 2006).

4) 청소년의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유아기부터 지속적으로 발달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정교하게 세분화되는 동시에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특징을 지니고(김희정, 2006), 중학생 시기는 대체적으로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급격한 신체 변화, 성적인 성숙과 더불어 인지적,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강현주, 노충래, 2012; 박진선, 2015).

청소년기는 자신을 판단하거나 기술하는 방식에서 아동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아동기와 비교하여 정신적인 성숙이 나타나 추상적인 사고능력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견해와 타인의 견해차를 인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의 피드백을 참조로 자신의 외모, 능력 및 행동을 객관적이고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위영미, 2003). 이처럼 청소년기는 비교적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여 좀더 현실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게 된다. 또 청소년기의 형식적 조작사고의 특징인 추상적 사고능력과 조망·수용능력은 자아개념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지적 요인이 되고 있다(위영미, 2003).

Erikson(1983)은 자기 ‘동일시(identity)에 대한 새로운 탐구가 청소년기의 주요 특징이라고 보면서, 자아정체감은 아동기의 경험과 동일시로부터 형성된다고 하였다(송경숙, 2004). 동일시는 주로 부모, 교사, 또래가 대상으로 다인의 감정, 동기, 태도, 가치관, 행위를 마치 자신의 것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청소년기를 정체감의 형성에 결정적 시기로 보았는데, 청소년기에 자기만의 독특한 총체(unique whole)로 능력이 첨가되어 통합하여 정체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Erikson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과 위기를 정체감 형성 대 정체감 혼미로 제시하였으며, 청소년기에 정체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청소년은

가출, 비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송경숙, 2004).

청소년기의 자아발견은 자신의 이상 세계의 발견이라도 나타낼 수 있지만, 현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만을 추구하다가 현실과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지만, 그들의 생각이 관념적, 이상적,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극단적일 수 있다고 하였고, 청소년기의 행동은 이상적, 객관적이라기보다 열정적이며 흔히 유아독존적이라고 하였다(이현희, 2005).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자아개념의 발달은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에 성차(gender difference)가 있고, 개인의 성숙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발달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위영미, 2003; 송경숙, 2004; 이현희, 2005).

3. 사회성

1) 사회성의 정의

사회성(sociability)이란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속한 환경에 적응하고 대인관계의 원만한 정도를 말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사회가 바라는 규칙과 규범, 행동양식, 가치, 문화 등을 학습해 가는 과정으로 사회성은 선천적인 능력이 아닌 후천적인 경험과 학습에 의해 형성되고 발달하게 된다(심소희, 2017). Kopp(1992)는 사회성에 대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 아닌 후천적으로 획득 할 수 있고 성장과정을 통해 발달된다고 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되며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김수정, 2011). 인간으로서 주어진 환경과 공동생활을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생활적응 능력으로 사회성은 성장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발달되어 진다(이진희, 2015).

사회성은 먼저 가족을 통하여 형성되게 되고,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와의 관계를 통하여 급격하게 사회성이 발달되게 되고, 자아정체성이 형성되게 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를 통해 일반적인 규범을 교육과 학습으로 바르고 건전한 사

회성을 형성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주변 환경에 의해 혼란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며 괴리감과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사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불안정한 사회성이 형성될 경우가 많다(심소희, 2017).

가정에서부터 직장까지 사용되는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이루는 기술을 사회성기술이라고 하며(Sitlington & Clark, 2006),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회적 단서를 인식하고 사회에서 공통으로 수용 될 수 있는 기술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회성 능력을 의미한다(Kerr & Nelson, 2006). 또한 윤점룡 외(2017)는 사회성 기술이 사회에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행동기술이고,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즉, 사회성 기술은 사춘기가 시작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불안정한 청소년기를 지나 원만한 성인기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심소희, 2017). 이는 사회적으로 쉽게 통합하지 못하고,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지적장애청소년들에게 반드시 교수되어야만 하는 기술이라고 했다(김유리, 2012).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사회성 기술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시키고, 사회적 환경 내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하면서 긍정적인 태도와 효율적인 의사소통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나타나는 행동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성 기술은 주로 대인관계를 통하여 나타나고, 개인이 과업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된 행동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시기에 형성되는 사회성 기술은 성인이 된 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방법을 습득하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또래와 학교에서부터 습득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사회성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아동기는 사회적인 상황이 크게 발달되지 않으며, 인격적으로 사회성이 발달하는 것은 사춘기 이후에 인간발달단계에 따라 사회성도 발달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신생아(생후 2주 이전 영아)에게는 사회성이 없

다(손수환, 2010). 그러다가 생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아주 초보적이긴 하지만 아동들은 남을 의식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며 사춘기 이전까지 타인에 대한 의식은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본격적인 사회성 발달은 사춘기 이후부터이다(손수환, 2010). 청소년기는 모든 발달이 거의 절정에 이르는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시기는 성적인 발달이 촉진되고 자신에 대한 의식과 타인에 대한 의식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회성의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박수혁, 2009). 청소년기가 되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그리고 인지적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아동으로서가 아니라, 성인으로서 일생동안 살아가야 할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 발달 뿐 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인간관계, 우정관계 그리고 직업 선택 등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김홍권, 1997). 청소년은 가족체제와 학급체제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원만한 사회적 대인 관계가 형성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우호성, 책임성 있는 역할 수립, 규범 준수 및 바람직한 가치 정립, 상황에 대한 긍정적 대처 등 사회생활에서 안정과 발전성을 갖게 하는 도움을 주면서 사회성이 발달된다(이승재, 1999).

청소년기는 그 발달과정에 있어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가 되는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게되기 때문에, 신체적 측면에서는 2차 성징이 발현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아동기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회화가 된다(손수환, 2010). 사회성이 발달한 청소년은 성격이 원만하여 타인과 갈등이 없으며, 주변에 친구가 많고 우호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김송이, 2017). 즉, 사회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닌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 그 가능성을 키워주는 환경 속에서 발달되며, 사회성발달을 위해서는 서로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또래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와 같은 도움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가치와 책임감,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중요성, 개인의 안전과 도덕적인 가치 개념, 협동심, 타인 중심의 성격 등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윤현준, 2009).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찰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기의 사회성

이란 성인을 흉내 내고 상호작용 영역에서 관심을 끄는 것, 성인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성인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 성취한일에 대해 자랑할 수 있는 행동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최종임, 2006). 또한 청소년의 사회성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과 학력이라고 밝히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이 청소년의 사회성에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한소희, 2005).

4. 선행연구 고찰

청소년의 장애인식과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식과 자아개념 관련 선행연구

장애인식과 자아개념과 연관성이 있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표 II-1] 장애인식과 자아개념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결과
송경숙 (2004)	여자 고등학생 314명	자아개념	장애인식	장애인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
이현희 (2005)	초등학생 71명	장애이해 프로그램	장애인식 자아개념	긍정적인 장애인식과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을 줌
김희정 (2006)	중학생 56명	장애이해 프로그램	장애인식 자아개념	장애인식에 도움 자아개념에 부분 도움
조혜원 (2008)	초등학생 64명	사회성숙도 아동지능	자아개념 사회성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장애인식에 긍정적인 효과
심은정 (2013)	중,고등 학생 18명	대인관계 프로그램	친구관계인식 자아개념	친구관계인식 및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효과
조소이 (2014)	중학생 93명	장애인식 개선프로그램	장애인식	장애인식이 개선됨

[표 II-1] 장애인식과 자아개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식과 자아개념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로 장애이해프로그램을 이용한 연구와 자아개념과 장애인식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들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이해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식과 자아개념에 대해 연구한 연구들은 대부분 장애인식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장애인식 개선과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이현희, 2005; 김희정, 2006; 조소이, 2014). 하지만 김희정(2006)의 연구에서 장애인식 개선에는 도움을 주지만 자아개념 성적, 학업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송경숙(2004)는 여자 고등학생 314명을 대상으로 자아개념과 장애인식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자아개념이 높은 학생들은 장애인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혜원(2008)는 초등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성숙도와 아동의 지능이 높을수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 장애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은정(2013)의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 각 9명에게 대인관계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친구관계인식과 자아개념의 형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식과 자아개념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아개념이 높으면 장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장애인식, 자아개념에 대한 변화를 살펴볼 뿐, 자아개념과 장애인식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적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식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급격한 신체 변화, 성적인 성숙과 더불어 인지적·정서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장애인식과 사회성 발달 관련 선행연구

장애인식과 사회성 발달과 연관성이 있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표 II-2] 장애인식과 사회성 발달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결과
오명희 (2005)	초등학생 70명	장애이해 프로그램	장애인식 활동 선호도	장애인식 및 활성선호도에 긍정적인 효과
조혜원 (2008)	초등학생 64명	사회성숙도 아동지능	자아개념 사회성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장애인식에 긍정적인 효과
차률 (2013)	고등학생 458명	장애인식 통합인식	사회성 발달	장애인식은 사회성발달에 긍정적인 효과

[표 II-2] 장애인식과 사회성 발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독립변인

으로 장애인식과 사회성 발달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오명희(2005)는 초등학교 70명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과 장애인식 및 활동 선호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조혜원(2008)는 초등학교 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성숙도와 아동의 지능이 높을수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 장애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률(2013)는 고등학교 458명을 대상으로 통합체육 수업을 통해 장애인식, 통합인식,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통합체육수업을 참여한 학생들의 장애인식이 향상되면 사회성 발달의 사교성, 책임성, 봉사성, 협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식과 사회성 발달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아개념이 높으면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아개념과 사회성 발달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적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아개념과 사회성 발달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행연구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3) 자아개념과 사회성 발달 관련 선행연구

자아개념과 사회성 발달과 연관성이 있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표 II-3] 자아개념과 사회성 발달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결과
오명희(2005)	초등학생 70명	장애이해 프로그램	장애인식 활동 선호도	장애인식 및 활성선호도에 긍정적인 효과
조혜원(2008)	초등학생 64명	사회성숙도 아동지능	자아개념 사회성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장애인식에 긍정적인 효과
이진수(2009)	중,고등 학생 122명	봉사활동 장애이해 프로그램참여 장애이해 교육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	자아개념과 사회성발달에 긍정적인 효과
김정효(2009)	고등학생 54명	또래교수 프로그램	사회성 자아정체감 장애인식	사회성, 자아정체감, 장애인식에 긍정적인 효과

[표 II-3] 자아개념과 사회성 발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독립변인으로 장애인식과 사회성 발달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오명희(2005)는 초등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식 및 활동 선호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조혜원(2008)는 초등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성숙도와 아동의 지능이 높을수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 장애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수(2009)는 중, 고등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장애이해 프로그램, 장애이해교육이 자아개념과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한 결과 봉사활동, 장애이해 프로그램, 장애이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아개념과 사회성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김정효(2009)의 연구에서 또래교수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 자아정체감, 장애인식의 영향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든 결과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또래교수프로그램을 통해 또래 수업을 같이 받는 학생들 사이에 사회성이 길러지고, 자아정체감에

향상되어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생기고, 인내심이 길러지는 효과를 얻었다. 장애인식에 대한 영향은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이상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자아개념과 사회성 발달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아개념이 높으면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아개념과 장애인식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적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아개념과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행연구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J도의 Y시에 위치한 1개 고등학교와 S시에 위치한 4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Y시 고등학생은 191명, S시 고등학생은 787명으로 총 9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의 면접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담당 선생님의 협조를 구하여 응답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재차 설명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8월 20일부터 총 2주간 이루어졌다. 4개 고등학교에 978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Y시 188부, S시 766부가 회수되었으나 무성의하게 답변한 5부를 제외하여 949부(회수율 97%)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개념의 위계적 구조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393명(41.4%), 여학생 556명(58.6%)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만 15세 222명(23.4%), 만 16세 497명(52.4%), 만 17세 175명(18.4%), 만 18세 55명(5.8%)로 나타났다.

[표 Ⅲ-1] 자아개념의 위계적 구조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393	41.4
	여	556	58.6
연령	만 15세	222	23.4
	만 16세	497	52.4
	만 17세	175	18.4
	만 18세	55	5.8
합 계		949	100.0

2. 연구 도구

1) 장애인식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Osgood(1957)의 의미변별 척도를 정선화(1993)가 변안, 재구성하고, 김공실(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장애아동 인식에 대한 의미변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장애인식 척도는 3가지 요인으로 평가요인, 능력요인, 활동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 대비되는 형용사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요인을 구성하는 의미변별척도는 귀한-천한, 좋은-나쁜, 밝은-어두운, 깨끗한-더러운, 중요한-하찮은 이며, 능력요인 구성은 강인한-허약한, 큰-작은, 무거운-가벼운, 유능한-무능한, 높은-낮은 이며, 활동요인 구성으로는 빠른-느린, 적극적-소극적, 능동적-수동적, 예민한-둔감한, 뜨거운-차가운 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장애학생에 긍정적 인식은 5점, 부정적인 인식은 1점으로 환산되도록 구성하였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평가요인(장애학생에 대한 평가) .830, 능력요인(장애학생의 능력에 대한 인식) .802, 활동요인(장애학생의 활동 능력에 대한 인식) .730, 장애인식 척도 전체 신뢰도는 .908로 나타났다.

[표 III-2] 장애인식 척도 및 신뢰도

구분	문항 내용	문항수	Cronbach- α
평가요인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	5	.830
능력요인	장애학생의 능력에 대한 인식	5	.802
활동요인	장애학생의 활동 능력에 대한 인식	5	.730
전 체		15	.908

2) 자아개념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은 송인순(2009)과 신희철(2019)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개념은 일반적 자아, 중요타인 자아, 정의적 자아 등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자아는 하위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총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지각하는 요인이며, 중요타인 자아개념은 사회적 인간관계에 대한 지각으로 대인관계 및 중요 타인에 대한 평가 지각 수준을 나타낸다. 정의적 자아개념은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 자아(총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지각하는 특성) .849, 중요타인 자아(대인관계 및 중요 타인에 대한 평가 지각 수준) .817, 정의적 자아(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지각 정도) .861, 자아개념 척도 전체 신뢰도는 .931로 나타났다.

[표 III-3] 자아개념 척도 및 신뢰도

구분	문항 내용	문항수	Cronbach- α
일반적 자아	총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지각하는 특성	5	.849
중요타인 자아	대인관계 및 중요 타인에 대한 평가 지각 수준	5	.817
정의적 자아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지각 정도	5	.861
전 체		15	.931

3) 사회성

본 연구에서 사회성발달에 관한 설문지는 정범모(1971)가 개발하고 진광호(2010), 김효정(2011), 신재웅(2019)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신뢰도가 입증된 문항들을 기초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성의 하위요인은 활동성, 지배성, 자율성, 사교성, 성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활동성(행

동적인 행동 및 성격을 나타내는 정도) .705, 성취성(활동에 대한 목표의식 정도) .825, 지배성(의견 제시 및 리더의 자질) .779, 사교성(대인관계에서의 사교성) .879, 자율성(규칙을 지키는 행동 및 독립성) .795, 사회성 척도 전체 신뢰도는 .926로 나타났다.

[표 III-4] 사회성 척도 및 신뢰도

구분	문항 내용	문항수	Cronbach- α
활동성	활동적인 행동 및 성격을 나타내는 정도	5	.705
성취성	활동에 대한 목표의식 정도	5	.825
지배성	의견 제시 및 리더의 자질	5	.779
사교성	대인관계에서의 사교성	5	.873
자율성	규칙을 지키는 행동 및 독립성	5	.795
전 체		25	.926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3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따른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장애인식이 자아개념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성별, 연령에 따른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 차이 검증

1) 성별에 따른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 차이 검증

성별에 따른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1]에 제시한 것과 같다. 성별에 따른 장애인식 하위요인 중 능력요인과 활동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식 총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식 총합은 3.22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3.25, 여학생 3.19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평가요인 전체는 3.25, 남학생 3.28, 여학생 3.23으로 나타났으며, 능력요인 전체는 3.15, 남학생 3.20, 여학생 3.11로 나타났다. 활동요인 전체는 3.25, 남학생 3.26, 여학생 3.2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 하위요인 중 중요타인 자아와 정의적 자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자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사회성 발달 하위요인 중 활동성, 지배성, 자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성, 사교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 총합은 3.17로 남학생 3.68, 여학생 3.58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성 총합은 3.36으로 남학생 3.44, 여학생 3.29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성별에 따른 검증은 남학생이 모두 높게 나타났고, 자아개념(일반적 자아), 사회성(사교성)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V-1] 성별에 따른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 차이 검증

변수		전체 (N=949)	남 (n=393)	여 (n=556)	t
		M(SD)	M(SD)	M(SD)	
장애인식	평가요인	3.25(.67)	3.28(.71)	3.23(.64)	1.066
	능력요인	3.15(.60)	3.20(.69)	3.11(.52)	2.076***
	활동요인	3.25(.65)	3.26(.71)	3.24(.60)	.417**
	총합	3.22(.57)	3.25(.64)	3.19(.52)	1.294**
자아개념	일반적 자아	3.58(.77)	3.67(.81)	3.52(.75)	2.844
	중요타인 자아	3.56(.71)	3.63(.80)	3.51(.63)	2.537***
	정의적 자아	3.73(.75)	3.74(.83)	3.72(.69)	.501***
	총합	3.17(.70)	3.68(.75)	3.58(.62)	2.140***
사회성 발달	활동성	3.35(.72)	3.30(.76)	3.09(.65)	4.423**
	성취성	3.33(.72)	3.39(.75)	3.32(.69)	1.459
	지배성	3.47(.82)	3.43(.78)	3.26(.66)	3.581***
	사교성	3.46(.68)	3.53(.84)	3.42(.80)	1.969
	자율성	3.62(.68)	3.57(.70)	3.38(.66)	4.341*
	총합	3.36(.59)	3.44(.64)	3.29(.54)	3.807**

* $p < .05$, ** $p < .01$, *** $p < .001$

2) 연령에 따른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 차이 검증

연령에 따른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2]에 제시한 것과 같다. 연령에 따른 장애인식과 장애인식 하위요인 중 평가요인, 능력요인, 활동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식 총합은 3.22로 만 15세 3.21, 만 16세 3.19, 만 17세와 만 18세가 각각 3.28로 17세와 18세가 높게 나타났다. 자아개념과 자아개념 하위요인 중 중요타인 자아와 정의적 자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개념 하위요인 중 일반적 자아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연령에 따른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 차이 검증

변수	전체 (N=949)	만 15세 ^a (n=222)	만 16세 ^b (n=497)	만 17세 ^c (n=175)	만 18세 ^d (n=55)	F	사후검증 (scheffe)
	M(SD)	M(SD)	M(SD)	M(SD)	M(SD)		
평가요인	3.25(.67)	3.23(.66)	3.23(.63)	3.33(.71)	3.29(.84)	1.258	
능력요인	3.15(.60)	3.15(.54)	3.12(.57)	3.20(.64)	3.17(.86)	0.977	
활동요인	3.25(.65)	3.25(.64)	3.22(.60)	3.32(.68)	3.38(.88)	1.751	
장애인식 총합	3.22(.57)	3.21(.55)	3.19(.54)	3.28(.61)	3.28(.82)	1.484	
일반적 자아	3.58(.77)	3.52(.71)	3.55(.75)	3.69(.90)	3.75(.74)	2.728*	c>a, b
중요타인 자아	3.56(.71)	3.54(.68)	3.53(.69)	3.65(.80)	3.60(.67)	1.416	
정의적 자의	3.73(.75)	3.75(.73)	3.69(.72)	3.80(.83)	3.72(.79)	0.998	
자아개념 총합	3.17(.70)	3.60(.63)	3.59(.65)	3.71(.78)	3.69(.66)	1.665	
활동성	3.35(.72)	3.03(.65)	3.17(.67)	3.35(.77)	3.19(.88)	6.947***	c>a, b
성취성	3.33(.72)	3.26(.66)	3.35(.70)	3.47(.79)	3.35(.86)	2.764*	c>a
지배성	3.47(.82)	3.26(.71)	3.31(.69)	3.40(.80)	3.51(.69)	2.465	
사교성	3.46(.68)	3.40(.80)	3.44(.80)	3.60(.86)	3.52(.86)	2.314	
자율성	3.62(.68)	3.38(.62)	3.43(.68)	3.60(.73)	3.57(.77)	4.231**	c>a, b
사회성 총합	3.36(.59)	3.27(.54)	3.34(.56)	3.49(.67)	3.43(.64)	4.923**	c>a, b

*p<.05, **p<.01, ***p<.001

사후검증 결과, 일반적 자아 개념에서는 만 17세 집단이 만 15세 집단과 만 16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아개념 총합은 3.17로 만 15세 3.60, 만 16세 3.59, 만 17세 3.71, 만 18세 3.69로 17세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사회성 하위요인 지배성과 사교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사회성과 사회성 하위요인 중 활동성, 성취성, 자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활동성에서는 만 17세 집단이 만 15세 집단과 만 16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취성은 만 17세 집단이 만 15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성과 사회성 총합은 만 17세 집단이 만 15세 집단과 만 16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의 상관분석

[표 IV-3]은 장애인식과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집단에서 장애인식과 자아개념, 장애인식과 사회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아개념과 사회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장애인식은 자아개념과 사회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식의 평가요인과 사회성의 활동성 사이($r = .158$), 장애인식의 능력요인과 사회성의 활동성 사이($r = .181$), 장애인식의 활동요인과 사회성의 활동성 사이($r = .134$)에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개념 일반적 자아와 사회성의 활동성 사이($r = .355$), 자아개념 중요 타인 자아와 사회성의 활동성 사이($r = .383$), 자아개념 정의적 자아와 사회성의 활동성 사이($r = .358$),에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식의 평가요인과 사회성의 성취성 사이($r = .197$), 장애인식의 능력요인과 성취성의 활동성 사이($r = .151$), 장애인식의 활동요인과 성취성의 활동성 사이($r = .145$)에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의 상관관계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평가 요인	능력 요인	활동 요인	합계	일반적 자아	중요타 인자아	정의적 자아	총합	활동성	성취성	지배성	사교성	자율성	총합
장애인식	1	1													
	2	.687**	1												
	3	.751**	.698**	1											
	4	.909**	.877**	.910**	1										
자아개념	5	.213**	.190**	.187**	.219**	1									
	6	.281**	.214**	.250**	.278**	.725**	1								
	7	.204**	.182**	.202**	.219**	.742**	.751**	1							
	8	.255**	.214**	.234**	.261**	.909**	.903**	.915**	1						
사회성	9	.158**	.181**	.134**	.175**	.355**	.383**	.358**	.402**	1					
	10	.197**	.151**	.145**	.183**	.496**	.526**	.515**	.563**	.552**	1				
	11	.174**	.142**	.128**	.165**	.490**	.504**	.498**	.547**	.510**	.777**	1			
	12	.197**	.117**	.174**	.183**	.470**	.535**	.487**	.546**	.480**	.616**	.631**	1		
	13	.188**	.188**	.149**	.195**	.498**	.431**	.501**	.525**	.492**	.538**	.557**	.473**	1	
	14	.227**	.191**	.182**	.223**	.573**	.593**	.585**	.642**	.747**	.863**	.862**	.808**	.750**	1

**p<.01

넷째, 자아개념 일반적 자아와 사회성의 성취성 사이($r = .496$)에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개념 중요타인 자아와 사회성의 성취성 사이($r = .526$), 자아개념 정의적 자아와 사회성의 성취성 사이($r = .515$)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장애인식의 평가요인과 사회성의 지배성 사이($r = .174$), 장애인식의 능력요인과 사회성의 지배성 사이($r = .142$), 장애인식의 활동요인과 사회성의 지배성 사이($r = .128$)에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자아개념 일반적 자아와 사회성의 지배성 사이($r = .490$), 자아개념의 정의적 자아와 사회성의 지배성 사이($r = .498$)에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개념 중요타인 자아와 사회성의 지배성 사이($r = .504$)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장애인식의 평가요인과 사회성의 사교성 사이($r = .197$), 장애인식의 능력요인과 사회성의 사교성 사이($r = .117$), 장애인식의 활동요인과 사회성의 사교성 사이($r = .174$)에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자아개념 일반적 자아와 사회성의 사교성 사이($r = .470$), 자아개념의 정의적 자아와 사회성의 사교성 사이($r = .487$)에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개념 중요타인 자아와 사회성의 사교성 사이($r = .535$)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장애인식의 평가요인과 사회성의 자율성 사이($r = .188$), 장애인식의 능력요인과 사회성의 자율성 사이($r = .188$), 장애인식의 활동요인과 사회성의 자율성 사이($r = .149$)에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자아개념 일반적 자아와 사회성의 자율성 사이($r = .498$), 자아개념 중요타인 자아와 사회성의 자율성 사이($r = .431$)에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개념 정의적 자아와 사회성의 자율성 사이($r = .501$)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의 관계 분석

1) 장애인식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에 장애인식에게 받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장애인식을 독립변인으로, 자아개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식이 장애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4]와 같다. 독립변수인 장애인식과 종속변수인 자아개념 사이의 상관관계(R)는 .261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R^2 = .068$ 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6.8%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Durbin-Watson의 수치는 2.084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식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F 값이 69.361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장애인식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변수 \ 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D	β		
상수	2.631	.121		21.751	.000***
장애인식	.308	.037	.261	8.328	.000***

$R = .261, R^2 = .068, Adj R^2 = .067$
 $F = 69.361^{***}, Durbin-Watson = 2.084$

*** $p < .001$

장애인식의 하위요인(평가 요인, 능력 요인, 활동 요인)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5]와 같다. 독립변수인 장애인식의 하위요인(평가 요인, 능력 요인, 활동 요인)과 종속변수인 자아개념 사이의 상관관계(R)는 .265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R^2 = .070$ 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7.0%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Durbin-Watson의 수치는 2.078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식의 하위요인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F 값이 23.723으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식 하위요인 중 평가 요인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능력 요인과 활동 요인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장애인식 하위요인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변수	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D	β			
상수	2.649	.122			21.719	.000***
평가 요인	.166	.051	.164		3.242	.001**
능력 요인	.055	.053	.048		1.033	.302
활동 요인	.080	.054	.077		1.496	.135

$R = .265, R^2=.070, Adj R^2=.067,$
 $F=23.723^{***}, Durbin-Watson = 2.078$

** $p < .01$, *** $p < .001$

2) 장애인식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성 발달에 장애인식에게 받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장애인식을 독립변인으로, 사회성 발달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식이 장애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6]와 같다. 독립변수인 장애인식과 종속변수인 사회성 발달 사이의 상관관계(R)는 .223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R^2 = .050$ 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5.0%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Durbin-Watson의 수치는 2.017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식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F 값이 49.603으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장애인식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변수 \ 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i>B</i>	<i>SD</i>	β		
상수	2.620	.106		24.674	.000***
장애인식	.229	.033	.223	7.043	.000***

$R = .223, R^2 = .050, Adj R^2 = .049,$
 $F = 49.603^{***}, Durbin-Watson = 2.017$

*** $p < .001$

장애인식의 하위요인(평가 요인, 능력 요인, 활동 요인)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IV-7]와 같다. 독립변수인 장애인식의 하위요인(평가 요인, 능력 요인, 활동 요인)과 종속변수인 사회성 발달 사이의 상관관계(*R*)는 .232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R^2 = .054$ 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5.4%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Durbin-Watson의 수치는 2.010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식의 하위요인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F*값이 17.944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식 하위요인 중 평가 요인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능력 요인과 활동 요인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장애인식 하위요인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변수	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i>B</i>	<i>SD</i>			β		
상수	2.630	.107				24.595	.000***
평가 요인	.160	.045			.181	3.557	.000***
능력 요인	.067	.046			.068	1.440	.150
활동 요인	-.001	.047			-.001	-.028	.977

$R = .232, R^2=.054, Adj R^2=.051,$
 $F=17.944^{***}, Durbin-Watson = 2.010$

*** $p < .001$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첫째,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른 검증에서 자아개념(일반적 자아), 사회성(성취성, 사교성)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연령에 따른 검증에서 자아개념(일반적 자아), 사회성(활동성, 성취성, 자율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성별과 연령에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학생의 인식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에서 장애인식은 자아개념(일반적 자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두 요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송경숙, 2004; 이현희, 2005; 조혜원, 2008; 심은정, 2013).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징에서 성별은 여성이 163명이나 많았지만 남학생이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의 차이에서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장애인식 차이를 나타낸 이진수(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성별에 따른 장애인식 결과 남학생이 장애인식에 대한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만 15세와 만 16세가 75.8%를 차지하고 있지만 만 17세와 만 18세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남학생 고학년으로 갈수록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차율(2013)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고등학생 1, 2, 3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고학년으로 갈수록 장애인식과 통합인식이 높고,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소희(2017)의 결과에서도 14-16세 집단보다 17-19세 집단이 장애인식과 사회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든 청소년들에게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식이 자아개념과 사회성을 높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장애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의 관계분석에서 장애인식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과 장애인식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이현희, 2005; 김희정, 2006; 조혜원, 2008; 이진수, 2009; 차률, 2013). 하지만 장애인식 하위요인이 자아개념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을 때 평가요인을 제외한 능력 요인과 활동 요인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식 하위요인이 자아개념과 사회성 발달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김정효(2009)의 연구와 부분 일치한다. 그리고 유나리와 박지현(2006)의 연구에서도 장애인식의 하위요인이 사회성에서 유의한 결과나 나타나지 않았다.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능력인식과 활동능력에 대한 인식은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혜원(2008)의 연구에서 장애인식의 하위요인이 자아개념과 사회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식은 자아개념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일으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장애인식과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의 장애인식과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세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관련된 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와 관련되어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 연령에 따른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 차이 분석 결과 먼저 성별에 따라 장애인식,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사회성 발달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만 17세 집단이 만 15세 집단과 만 16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식과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장애인식과 자아개념, 장애인식과 사회성, 자아개념과 사회성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장애인식은 자아개념과 사회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식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장애인식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식 하위요인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 요인은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능력 요인과 활동 요인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식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장애인식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식 하위요인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 평가 요인은 사회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능력 요인과 활동 요인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J도의 Y시와 S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과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식에 대한 중요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능력과 활동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차후 장애학생과 함께 할 수 있

는 체험학습을 통하여 장애인식과 장애수용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아 (2004).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강정희 (2008). **특수교육학**. 서울: 희소.
- 강현주, 노충래 (2012). 청소년 자아개념에 대한 지역효과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3(4), 101-129
- 곽재복 (1992).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인식과 홍보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서울.
- 고기쁨 (2015). **초등 통합학급 내 스킬스트리밍 교수가 지적장애 학생의 사회성 기술 및 문제 행동과 일반 학생의 장애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고진영 (2004). **발달단계별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교육부 (2015). **통합교육정책의 효과와 발전방안 연구**. 서울.
- 교육부 (2018).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서울.
- 국립특수교육원 (2002). 장애인식 관련 내용
- 권선진 (2004). 장애인 차별실태와 인권의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8(3), 59-75.
- 김경보 (2009).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변인탐구-부부갈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김공실 (2010). **교과와 연계한 장애관련 독후활동이 초등학생의 장애인식 및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대구.

- 김삼섭 (1999). **특수교육의 심리적 기초**. 서울: 교육아카데미.
- 김상현 (2007). **초등학생의 장애 인지 수준과 장애 수용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 김수정 (2011). **지적장애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을 한 집단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군포.
- 김송이 (2017). **융합예술교육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뮤지컬음악과 스포츠 융합교육사례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애경 (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에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51-372.
- 김영환, 김삼섭 (1984). 새로운 장애자관의 정립을 위한 철학적 접근-철학적 인간의 관점에서-. **교육연구**, 제1집, 88-100.
- 김용득, 유동철 (2001).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서울: 인간과 복지.
- 김유리 (2012).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이 비장애초등학생의 장애인식과 활동 선호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유진 (2014). 공감훈련에 기반한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이 지적장애아동의 공감능력과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심리행동연구**, 6(2), 1-26.
- 김숙경 (2007). 일반 고등학생의 장애인대상 자원봉사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화 (2016).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관한 집단사진치료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서울.
- 김정효 (2009). **기능적 읽기 중심의 상급학생 또래교수가 장애 중등학생의 기능적 읽기 능력 및 사회성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희정 (2006). **장애체험 클럽활동이 일반학생의 장애인식과 자아개념에 미**

- 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공주.
- 김홍권 (1997). **인간관계수련 프로그램의 사회성 증진 효과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완주.
- 김홍주 (2004). **통합학급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기식 및 태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부산.
- 김효정 (2011). **대학생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통한 사회성발달 요인 및 재미요인이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계수정 (1993). **사려-충동성 인지양식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나선희 (2004). **중학교 재량활동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통한 비장애 학생이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변화.**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광주.
- 남민정 (2010). **초등미성취 영재의 사회·정서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개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문지영 (2018). **청소년 문화자본, 자아개념, 학업성취 간의 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문진아 (2004). **장애이해 프로그램이 일반아동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
- 박수혁 (2009).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사회성 발달,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승진 (2009). **장애인이 주인공이 된 문화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장애인식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용인.
- 박진선 (2015). **고등학생의 불안, 공감, 자아탄력성이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손수환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비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부산.
- 송경숙 (2004). **일반 여자고등학교 학생의 자아개념과 장애인식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주.
- 송인섭 (1998). **인간 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 송인섭 (2011). Q-기법을 적용한 자아개념 구인 타당도 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10(1), 27-48.
- 송인순 (2009). **자아개념과 불안이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송인섭 (1989).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 신재웅 (2019).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정도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청주.
- 신희철 (2019). **인천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심소희 (2017). **지적장애청소년의 통합스포츠 참여가 공감능력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서울.
- 심은정 (2013).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특수학급 발달장애학생의 친구관계인식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승윤희 (2011). 통합교육 실태 및 특수/통합학급 교사들의 의견조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7(4), 317-343.
- 오광진 (2010). **특수체육의 이해**. 서울: 레인보우북스.
- 오명희 (2005).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일반 아동의 장애인식 및 활동 선택도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 오유석 (2001). **통합교육 경험이 초등학생의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태**

- 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공주.
- 위영미 (2003).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성취동기와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울.
- 이규태 (1981). **장애자복지에 대한 한국인 의식구조.**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이대식, 김수연, 이은주, 허승준 (2006). **통합교육의 이해와 실제: 통합학급에서의 효과적인 교육방법.** 서울: 학지사.
- 이부영 (2002). **자기와 자기실현.** 서울: 한길사.
- 이성범, 황향희, 이종민 (2012). 통합수영교실이 지적장애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21(3), 193-204.
- 이세호 (2018). **초등학교 고학년의 장애인식 및 통합교육인식 연구: 통합체육수업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용인.
- 이순재 (199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 통제성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승재 (1999). **청소년의 가족체제와 학급체제에 대한 지각과 사회성과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연경 (2003). **장애수용 프로그램이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진주.
- 이진수 (2009).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청소년의 인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진영, 위은하 (2013).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외모관리행동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5(3), 19-38.
- 이진희 (2015). **원대형을 강조한 무용/동작심리치료가 지적장애아동의 사회**

성 및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현희 (2005). **장애 이해 프로그램이 일반아동의 장애인식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대구.

이혜은 (2012). **발달장애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천안.

유나리, 박지현 (2006). 국어과 학급차원의 또래교수가 정서 및 행동장애 위험 아동과 일반아동의 받아쓰기 과제성취도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22(4), 35-54.**

윤길옥 (2014). **수업용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수업참여도와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주.

윤점룡, 이상훈, 문현미, 서운정, 김민동, 문장원 (2017).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서울: 학지사.

윤현준 (2009). 청소년기 유도 수련 과정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용인.

장경수 (2014). **청소년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자아개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장영애, 손영미 (2006).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17(4), 85-93.**

진광호 (2010).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차이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병재 (1973). 자아개념 이론에 관한 고찰. **인문과학, 제29호, 169-185.**

정다연 (2019). **글쓰기를 활용한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일반아동의 장애인식, 수용태도 및 장애인관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인천.

- 정만복 (2010). **SDA 삼육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정범모 (1971). **인성검사요강**. 서울 : 코리아테스팅센터.
- 정선화 (1993). **정신지체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개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정영숙 (2005). **실업계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공주.
- 정원식 (1968). 여성과 교육. **아시아여성연구, 제7집**, 77-94.
- 주연수 (1999). 자아개념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가치교육을 통한 변화 가능성 모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서울
- 조소이 (2014). **장애인식개선교육과 통합교육이 비장애학생들의 장애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조혜원 (2008). **청소년단체활동이 장애아동의 자아개념 및 사회성 기술과 일반아동의 장애인식개선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차률 (2013). **통합체육수업 참여에 따른 비장애 고등학생의 장애인식, 통합인식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최강준 (2003).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최종임 (2006). 부모의 리더십개념인식과 부모양육행동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1(2)**, 5-24.
- 최하영 (2015). 장애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탐색. **사회과학교육연구, 17**, 73-86.
- 한소희 (2005).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서울.

한국장애인관리공단 (2019). **한눈에 보는 2019 장애인통계**. 성남: 한국장애인
관리공단.

Erikson, E. (198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 Norton.

Esposito, B. G., & Peach, W. J. (1983). *Change attitudes of
preschool children toward handicapped. Exceptional
Children, 49*, 361-363.

Gouldner, H, 1978, Teacher's Pets, trouble makers, and nobodies
: Black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Westport, CT :
Greenwood.

Kerr, M. M., & Nelson, C. M. (2006). *Strategies for managing behavior
problems in the classroom(5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rentice Hall.

Kopp, C. B., Baker, B. L., & Brown, K. W. (1992). Social skills and their
correlates; Preschoolers with developmental delay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ion, 96*, 357-366.

Marsh, H. W. (1990). The structure of academic self-concept: The
Marsh/Shavelson mode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4)*,
623.

OSGOOD, C. E. (1957). *Motivational dynamics of language behavior*. In M.
R. Jones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Univer.
Nebraska Press.

Peck, C.A., Donaldson, J. and Pezzoli, M. (1990) Some Benefits
Non-Handicapped Adolescents Perceive for Themselves from Their
Social Relationships with Peers Who Have Severe Disabiliti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15,

241-249.

Purkey, W. (1970). *Self-conceiving and school Achievement*. New Hersey: Prentice-Hall.

Rosenberg(1978).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Siller, J. (1967). *Studies in reaction to disability, VII: Structure of attitudes toward physically disabled: Disability Factor Scales-Amputation, Blindness, Cosmetic conditions*. New York Univ.

Sitlington, P. L., & Clark, G. M. (2006). *Transition education and servi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4th ed.)*. Boston, MA:Allyn & Bacon.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청소년의 장애인식과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익명으로 작성되며,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용으로만 활용되며, 연구 종료 후 바로 삭제될 것입니다. 또한 본 설문지에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언제든지 설문지 응답을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시면, 문항을 읽으신 후 선생님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연구 참여 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19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지도교수 : 김정연

연구자 : 김희숙

연락처 : 010-6318-7428

※ 다음은 문항은 일반적인 질문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거나 기입해 주십시오.

1. 학생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학생의 연령은? (만 _____세)

I. 장애인식

이 설문지는 주어진 단어에 따라 15쌍의 반대어가 있고, 그 사이에는 5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쪽의 반대어를 읽고 맨 앞의 주제어에 대하여 느끼는 바를 그 정도에 따라 <보기>와 같이 하나만 골라 표시(√) 해 주세요.

<보기>

※ ‘장애학생’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매우 좋다’라고 느끼면 아래와 같이 좋은 쪽의 ‘매우’라는 칸 안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좋은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나쁜
	√					

※ ‘장애학생’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약간 나쁘다’라고 느끼면 아래와 같이 나쁜 쪽의 ‘약간’이라는 칸 안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좋은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나쁜
				√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1.	좋은	⑤	④	③	②	①	나쁜
2.	적극적	⑤	④	③	②	①	소극적
3.	빠른	⑤	④	③	②	①	느린
4.	귀한	⑤	④	③	②	①	천한
5.	깨끗한	⑤	④	③	②	①	더러운
6.	큰	⑤	④	③	②	①	작은
7.	강인한	⑤	④	③	②	①	허약한
8.	예민한	⑤	④	③	②	①	둔감한
9.	유능한	⑤	④	③	②	①	무능한
10.	무거운	⑤	④	③	②	①	가벼운
11.	밝은	⑤	④	③	②	①	어두운
12.	능동적	⑤	④	③	②	①	수동적
13.	중요한	⑤	④	③	②	①	하찮은
14.	높은	⑤	④	③	②	①	낮은
15.	뜨거운	⑤	④	③	②	①	차가운

II. 자아개념

※ ‘자아개념’이란 ‘개인이 소속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의해 형성된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 신념, 태도의 총체적 이미지’를 말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나는 자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편이다.					
17. 나는 별 어려움 없이 쉽게 내 마음을 결정하는 편이다.					
18.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9.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20. 나는 ‘현재의 나’에 만족한다.					
21.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사교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2.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좋아한다.					
23.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만족한다.					
24. 내 친구들은 나를 믿는다.					
25. 나는 친구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6.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7. 나는 명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8. 나는 나의 도덕적 행동에 만족한다.					
29.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30. 나는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Ⅲ. 사회성

※ ‘사회성’이라는 말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활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 혹은 대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나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일을 좋아한다.					
32. 난 어떤 일이든 생각나면 곧 행동으로 실천한다.					
33.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천천히 해라”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34. 나는 하던 일을 빨리하고 새로운 과제를 하는 편이다.					
35. 나는 언제나 바쁘게 지내는 편이다.					
36. 내가 앞장서서 어떤 모임이나 클럽을 만든 적이 있다.					
37. 남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쳐 주기를 좋아한다.					
38. 모두들 망설이다가도 내가 하자고 하면 일을 할 때가 많다.					
39. 친구들과 어울릴 때 내가 주로 앞장선다.					
40.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을 귀 담아 들어준다.					
41. 나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들을 설득하여 내 편으로 만드는 편이다.					
42.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내 의견이 채택되도록 한다.					
43. 나는 남을 리드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자신이 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4. 나는 어느 곳에서나 거리낌 없이 내 의견을 발표한다.					
45. 대기업의 평사원보다는 작은 회사의 간부가 되고 싶다.					
46. 나는 여러 사람과 어울려 알게 되는 것이 즐겁다.					
47. 나는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과도 잘 어울린다.					
48. 나는 되도록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					
49. 주위 사람들이 나를 사교적이라고 말한다.					
50.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다.					
51.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					
52.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다.					
53. 나는 규칙을 스스로 잘 지키면서 행동하는 편이다.					
54. 나는 대체로 남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는다.					
55. 나는 지시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행하는 편이다.					

-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